

‘부자증세’ 카드 꺼낸 더민주 “정부와 전면전”

5억 소득 41%·법인세 25%로 인상...세법개정안 발표 서민·영세사업자 근로장려금 늘리고 월세공제액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사실상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신, 중산층에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비 때마다 법인세 정상화 등 사실상의 증세를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더민주로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변 의장은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고 영입이 이익이 높은 법인부터 실질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영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가 강화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자산가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연령별로 차등을 뒤 어린 나이에 증여를 받을수록 증여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고소득자 과세율도 높아진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1%로 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이 최고 소득으로 과세율은 38%다. 이를 개선해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원칙 시행을 주장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2주택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유예하기로 하자 더민주의 지하경제의 상당분이 주택임대소득에 있다면서 원칙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의 대신, 서민·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 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상태까지 내려갔다. 이대로는 저성장·저부담·저복지의 틀을 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된 관심사가운데 하나인 면세자 비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수전사령부 이천시대

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부대 이전 기념행사에서 대원들이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전남농업 70년사’ 내년초 발간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 참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 전남 농업·농촌의 특징 등 11개 부문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남농업 70년사’가 발간된다.

전남도는 2일 청사 서재발실에서 이날 저녁 7시 30분께 각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업 70년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복 이후 전남농업 변천 과정을 시기별·분야별로 정리·분석·평가, 향후 전남 미래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11개 부문별로는 ▲전남농업·농정 70년사 개관 ▲농지제도 등 생산기반의 변천과정 ▲4-H 운동, 농업인후계자 육성 등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식량·특용·원예·축산·잡곡 등 농업기술 개발·

보급 ▲녹색혁명과 주곡의 자급 등 식량작물 생산정책 ▲원예·특작 생산·유통정책 ▲축산정책의 변천 과정 ▲임업·산림정책 ▲농촌지역개발 ▲새마을공작·농어촌특산단지 개발 등 농외소득 개발 ▲농정조직 및 농업예산 변천 과정 등이다.

전남도는 또 광복 이후 전남 농업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인물들의 업적을 기술헌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전남농업을 빛낸 인물’도 발간한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뒤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전남농업 70년사’와 ‘전남농업을 빛낸 인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주민 10명중 6명

“주민 주도 섬 생태·문화자원 개발해야”

전남도 브랜드 사업인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섬 주민 60%가량은 섬 개발 방향과 관련해 “주민이 중심이 돼 섬 생태와 문화자원을 개발·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책임연구원이 5월 한달간 여수·남도, 고흥·연흥도, 완도·소완도 등 전남도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 8곳의 주민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9.8%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관광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매력 있는 섬 관광자원으로 ‘해안풍경’(5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갯벌(19.9%), 섬 숲(12.1%) 등을 들었다. 섬 여행 때 제약요인으로는 ‘접근성 불편’(34.6%), ‘관광편의시설 부족’(31.6%) 등을 꼽았다. 섬 생활에 대해서는 40.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20.3%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김준 연구위원은 2일 “주민들은 가고 싶은 섬을 가꾸는데 체험프로그램, 탐방로, 주민전설성, 향토음식 등이 우선 필요하며, 고급펜션이나 대규모 시설은 자양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라고 섬 사업을 유치해 관광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주민들의 참여도와 지역발전 완성도를 높이려면 공무원 조직과 별도의 지원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4개월만에 입장 바꿔...광산업진흥회 예산 다시 지원

광주시 “해의 마케팅 안돼 기업 존폐 위기...시급한 사안”

광주시가 전면 중단했던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진흥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밝힌 뒤 4개월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지역의 대표산업인 광산업 육성과 지원업무를 한국광산업진흥회(진흥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됐던 광산업 전시회, 광산업 브랜드 인증지원사업 등을 올해 계획된 30억원에 달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광주시는 진흥회를 대신해 광산업 관련 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광산업전략기획TF팀을 꾸렸다.

광주시는 3차례 TF팀 회의를 거쳐 중장기 발전방향, 기업지원방식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지만 해의 마케팅 등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 이 비용과 광산업전시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개월째 예산지원이 끊기자 광산업 업체의 불만과 항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업 통계조사분석 등 나머지 3개 사

업은 8월 이후 지원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4개월여만에 앞뒤가 바뀐 것은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지원 중단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진흥회에 대한 지원 중단의 배경에는 비효율적인 지원방식과 대상업체 선정 문제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흥회 상임 부회장 선임 과정의 갈등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진흥회는 상임부회장으로 3년 임기를 채운 조모 부회장을 시장의 반대에도 연임을 강행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유관 기관의 예산 중단과 재계 과정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행정불신

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파하기 힘들게 됐다.

진흥회는 광산업 연합체로 광산업 발전 계획 및 정책연구, 국제교류, 시장개척 등을 위해 2000년 5월 설립됐다. 광산업 업체 259곳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광주 업체는 151곳이다.

회장(비상근)과 부회장(상근), 사무국장, 정책기획부, 사업지원부 등 2부에 임직원은 18명이다.

70억원 안팎의 예산 중 절반 가량을 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 지원 중단에 따라 연봉을 자진 삭감했던 일부 임원은 예산지원 방침이 알려지면서 복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5개구청 아이돌보미 50명 모집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오는 12일까지 아이돌보미 5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돌봐주는 육아 전문가다. 아동의 놀이 활동과 급식이나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등을 도와준다.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당 최소 6500원의 활동수당과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 등이 지원된다. 양육 경험 이 있고 신체 건강한 광주시 거주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각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신청자 중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양성교육(이론 8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 등 2

주간 교육한 뒤 아이돌보미로 등록, 돌보미 파견을 요청하는 가정에 연계, 지원한다. 광주시는 돌보미 모집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능력 개발과 재취업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거주지 구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구청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다.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062-234-5801),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5), 남구 사단법인구터터기(062-682-0191),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461-1337),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959-9336)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시 접수 2016. 8. 8(월)~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초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즐겁게·모이자·房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시설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뚜기!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